

사회



최근 운항을 시작한 응급의료헬기 의료진들이 25일 헬기 내에 갖춰진 긴급 의료장비를 활용해 중증 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섬·오지 응급환자 전용헬기 본격 가동

‘에어 앰블런스’ 신고 5분내 뜬다

목포 한국병원 전문의 탑승 응급 치료

낙나나 오지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에어 앰블런스(Air Ambulance)’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출동 요청이 접수된 지 5분 이내에 전문 의사가 각종 응급의료 장비가 구비된 헬기에 탑승해 출동하는 ‘응급 의료전송 헬기’서비스가 시작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전남도는 최근 영암군 삼호읍 F1 거주자에 응급의료 전용헬기(유로콥터 EC-135·환자포함 6인승)를 배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헬기는 119나 보건지소, 진료소 등

의 출동요청을 받으면 목포 한국병원에서 응급의료 전문의와 간호사를 태우고 5분 이내에 출동해 응급환자가 있는 현장에 30분 미만 도착, 응급 처치가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소방헬기가 사용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까지 30분이 걸리는데다, 의료장비조차 없는 탓에 이송 실적이 미흡하고 헬기 운영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헬기 운영에는 국·도비 등 25억원(헬기 운영비 15억·착륙장 건설 10억)이 투입됐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최대속도 시

| ■응급 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 | |
|----------------------------|------------------------------------|
| 기종 | EC-135(유로콥터사 제작) |
| 가격 | 150억원 |
| 탑승인원 | 6명(환자 2명 포함) |
| 최대 속도 | 254km/h |
| 최대 비행거리 | 635km |
| 운영비용 | 매월 2억5000만원 (운용서 지급하는 헬기·인력 등 인차료) |
| 이송시간 | 1시간 이내(현재 3~4시간) |
| 적정 응급치율 | 100%(현재 37%) |

속 254km로 목포한국병원에서 반경 70km 이내에 있는 완도·노화·보길, 진도·조도·관매도 등 섬 지역 환자 이송을 담당하게 됐다. 항공거리 635km. 하지만 전남에만 296개 유인도가 있는데다, 70km 이상 떨어진 신안·흑산, 완도·급일·급당·약산·고급의 경

우 운항 범위가 제한되면서 당분간 이송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출동 신고를 받은 뒤 F1 거주자에 위치한 헬기 계류장에서 병원으로 이동, 의료진을 태우고 움직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응급 환자 처치를 위해서는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남도 관계자는 “6개월간 시범운항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한 뒤 헬기 출동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남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충분한 헬기 계류장을 갖춘 병원이 없는 실정으로, 이번 사업을 위해 병원에서 최단거리로 위치한 지상 헬기 계류장 조성 공사가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119·의사가 응급헬기 요청 일반인은 출동 요청 안돼

응급 의료 헬기는 응급의학전문가가 탑승하고 의료 장비가 갖춰진 헬기로, 응급환자 이송 및 치료에만 사용된다. 현재까지는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소방헬기가 사용되면서 신고→119 접수→항공대 승인·접수를 거쳐 출동하기까지 30분이 걸렸지만 응급 의료헬기는 헬기 요청 뒤 5분 이내에 이륙한다. 출동 요청은 일반인이 할 수 없으며 응급 환자를 치료중인 의사나 119, 보건진료원, 응급의료정보센터만이 할 수 있다. 또 현장에 출동했다 하더라도 의료진이 응급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송하지 않는다.

장성서 노부부 피살

경찰, 용의자 아들 친구 추적 “어머니 멸시” 살해후 도주한 듯

노부부가 아들의 친구로 추정되는 용의자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새벽 2시께 장성군 장성읍에 사는 차모(82)씨 집에서 차씨와 부인 김모(72)씨가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됐다. 안방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둔기가 발견됐다. 차씨 부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당시 아들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장성시 주민 김모씨는 서울에 사는 자신의 형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노부부를 살해했다”고 말했으며 김씨의 형은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매곡동 대형마트 설계 건축사 조사

광주북부경찰

광주북부경찰은 25일 광주시 북구청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달 고발한 건축사 3명 중 1명을 매곡동 대형마트 설계와 관련, 위법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표면 산정, 건물 용도 분할 등 설계 전반에서 건축사들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북구청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건축사들을 불러 확인하는 한편, 설계사들이 현장조사 후

개강파티 대학생 노래방 계단 추락 숨져

남구 송하동서

지난 22일 밤 11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송하동 한 호프집 건물 2층 계단에서 광주 모 대학 3학년 이모(23)씨가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것을 선배 정모(23)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계단에 걸터앉은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

장성 터널 붕괴 관계자 사법처리될 듯

장성 호남고속철도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공사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장성경찰은 25일 호남고속철도 달성터널 시공사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는 방안을 검찰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사 관계자 3명은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철도 공사현장 5-1공구를 설계와 달리 시공하거나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붕괴사

나원침 (8402) 김중두



신입생 야구방망이 구타

학과 학생회장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미화 판사는 25일 신입생들을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교 4학년 조모(2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학년 학생들이 었던 배치체 하고 폭력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실이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학과 학생회장인 조씨는 지난 4월 14일 낮 12시30분께 과실에서 “적성검사를 받도록 알려줬는데도 받지 않았다”며 1학년 학생 11명을 앞뒤로 해 일부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3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만취녀 공터로 엮고가 성폭행

○아파트 단지에서 만취해 쓰러져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서 행.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25일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전담수사에 따르면 하모(35)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모 아파트 단지 내에 만취해 쓰러져 있던 A(여·32)씨에게 접근한 뒤 등에 엮고 돌아다니다 주변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하씨는 A씨를 데려다 줄 것처럼 등에 엮고 다니며 성폭행 장소를 물색한 뒤 무의식 중에 A씨가 반항하자 얼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경찰은 아파트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녹화장면을 단서로 탐문수사 끝에 하씨를 검거.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10월 4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급 검찰직 원서생직(전문) 한빛고시학원 전문부서관 9급 야간반 농업직/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명품' 7급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